

# 哲學과 科學의 世界觀

金 俊 燮

## 머 리 말

歷史를 古代·中世·近世·現代로 區分해 볼 때에 近世에서 現代에 이르는 時代의 特徵은 科學의 急速度의 發達에 있다고 할 것이다. 科學은 合理性和 實驗性을 二大根幹으로 하여 成立된다. 合理性은 科學의 理論을 세우는 要素가 되며, 實驗性은 技術을 통한 實證의 要素가 된다. 어느 한 쪽이 倣如되어도 科學은 知識으로서의 그 價値를 덜게 된다. 科學이 人類의 信任度를 높여가는 것은 合理性和 實驗性의 結合과 統一에 있다.

人間의 知性的 發達로 科學理論은 無矛盾性, 獨立性, 完全性, 優美性을 具備한 體系로 發達되게 되었다. 그것이 技術의 發達로 實驗을 通하여 實證의 길을 밟는데서 科學의 發達は 다른 文化에 比하여 急速度로 進展되게 됐다. 따라서 文化의 均衡과 調和가 破壞되게 되는 形便에 이른 것이 現代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科學의 偏重된 發達は 人類에게 戰爭의 危殆과 恐怖를 가지게 하며 그리고 科學에 관한 誤解를 가져왔다. 이러한 恐怖와 誤解를 벗어나게 하고 科學의 眞價를 바로 理解하고 評價하여 科學의 發達을 옳은 길로 더욱 發達시켜 人類의 繁榮과 幸福에 더욱 寄與케 하는 것이 現代 哲學의 한 任務라고 본다. 科學文明을 排斥하거나 또는 拒否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利用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哲學의 한 使命이며 거기에 哲學의 한 意義가 있다고 본다.

哲學은 어떤 知識보다도 삶을 넓게 보고 깊이 보며, 가까이 보면서도 멀리 보려는데 그 長點이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삶의 世界로 돌아가서 科學의 位置와 次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科學은 具體的인 삶의 世界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다. 個人은 누구나 世界속에 태어나서 世界속에서 살고 있는 有限的 存在者이다. 具體的인 現實의 世界는 모든 個人의 直接的인 世界요 一次의 世界이다. 우리가 一生을 사는 동안 잠시도 떠날 수 없는 世界가 바로 이 現實의 世界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常識을 가지며 科學을 가지며 哲學을 가진다.

常識과 科學과 哲學은 모두 各個人과 世界와의 關係에서 成立되는 人間의 像(Bild)과 觀(Anschauung)에서 成立된다. 삶이 基礎가 되는 常識의 世界像과 世界觀을 먼저 살피는 데서 시작하겠다.

## 1. 常識의 世界觀

常識의 世界觀은 常識의인 많은 像을 統一하는데서 이루어진다. 無限하고 永遠하다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各自의 人間은 幼兒에서 少年이 되고, 青年과 壯年을 거쳐 老境에 이르기까지 無數한 經驗과 體驗을 通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世界像을 가지게 된다. 혼자서 웅얼거리며 말을 배우며, 소꿉장난을 하며, 밤에 꿈을 꾸며, 낮에 空想을 하며, 山川草木과 對話를 하는 어린 시절부터 教育을 받고 社會에 나가서 活動을 하다가 老衰하기까지 우리는 始終 感覺과 知覺을 통하여 現實世界에 관한 많은 像을 가진다. 그때 그때의 關心이나 目的이나 環境의 條件에 따라 各自는 變化無變의 體驗을 통하여 感覺的 世界像을 蓄積하고 成長시켜 간다. 世上에 태어나서 자란 環境과 教育의 程度에 따라 사람들의 實際의 世界像은 千態萬像이다. 이러한 各自의 現實的 世界像은 뒤에 言及될 모든 世界像의 基本模型이 되며 一次의 世界像이다.

一次의 世界像의 共通點을 抽象하여 原理를 發見하여 統一하는데서 各自의 常識的 世界觀이 成立된다. 各自의 個別的 常識的 世界觀의 共通點을 抽象하여 類型을 찾는 데서 社會的 地域的인 常識的 世界觀을 發見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東洋人의 常識的 世界觀, 西洋人의 常識的 世界觀, 南洋人의 常識的 世界觀등을 區別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것을 다시 細分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世界觀은 感覺的 經驗을 토대로 하는데서 直接的이며, 主觀的이며, 非合理的이며, 斷片的이며, 個別的인 性質을 띄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世界觀은 모든 世界觀의 토대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世界觀에 좌우되며 日常生活을 해나가고 있다. 사람은 한 때라도 環境을 떠날 수 없듯이 常識을 떠날 수 없으며, 常識的인 世界像의 統一로서의 常識的인 世界觀을 떠나서 計劃과 目的있는 日常生活을 할 수 없다.

그러나 常識的 世界觀은 위에서指摘했듯이 그 直接性, 主觀性, 非合理性, 斷片性, 個別性등으로 인하여 生活에 가장 密着되면서도 그 限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世界觀에 固執되는 限 間接性, 客觀性, 合理性, 全體性, 社會性, 歷史性을 지닌 活動은 圓滿하게 할 수 없게 된다. 科學的 世界觀은 常識的 世界觀의 偏見을 打破하여 그 보다 自由로운 生活을 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科學的 世界觀

常識的 世界觀이 常識的인 感覺的 世界像을 基礎로하여 성립되는데 대하여 科學的 世界觀은 自然科學, 社會科學, 人文科學등 모든 科學的 世界像을 基礎로 성립되는 데 그 特徵이 있다. 自然, 社會, 歷史속에 살고 있는 점은 一般人이나 科學者나 哲學者나 마찬가지로다. 마치 모두가 짐속에서 살고 있듯이 삶에 根本的 差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짐을 짓는데 設

計圖가 必要하듯이 自然과 社會와 歷史를 우리의 삶에 맞도록 만들고 利用하는에는 科學的 知識이 必要하게 된다.

科學의 精神은 常識의 直接性和 實用性を 떠나 知識의 獨自性を 주장하는 自由精神과 合理的 精神과 實證的 精神을 基礎로 한다. 科學的 知識은 常識과 달리 客觀的이며 合理的이며 統一의인 것으로 아는데 있어 常識보다 깊고 넓고 體系의인 點에 그 特徵이 있다. 表面뿐 아니라 內部的 深層組織을 알고, 斷片的이 아니라 體系의으로 안다는 것은 그만큼 自然과 社會와 歷史의 利用度를 높이게 된다.

科學的 世界像은 對象自體를 分析하여 研究한 結果를 토대로 發見되는 世界像이므로 常識的 世界像에 比하여 世界에 관한 像이 마치 建築의 設計圖같이 間接的인 像이 된다. 그러나 建築을 아는데 肉眼으로 直接的으로 보는 것보다는 設計圖로써 보는 것이 客觀的이고 合理的이고, 統一의이어서 建築의 構造와 材料와 壽命을 더욱 잘 보아 評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科學的 世界像은 世界에 관한 間接的인 像이기는 하나 世界를 보다 正確하고 內部를 構造的으로 알게 하고 또한 製造하고 利用할 수 있게 하는데서 常識的인 世界像보다 크게 삶에 도움이 된다.

科學的 世界觀은 이러한 世界像을 原理에 의하여 綜合하고 統一하는데서 成立된다. 自然科學的 世界觀은 自然科學의 領域의 世界像을, 社會科學的 世界觀은 社會科學의 領域의 世界像을, 人文科學的 世界觀은 人文科學의 領域의 世界像을 토대로 各各의 世界觀이 成立되게 된다. 그리고 우리 人間이 環境과 世界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自然에서만 사는 것도 社會나 歷史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結合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三者의 世界觀이 統一된 하나의 世界觀이 形成되어야 할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三者의 世界觀을 다 論할 時間的 여유가 없으므로 自然科學的 世界觀을 論하는데 그치려다.

西洋에서 自然科學的 世界觀이 처음으로 發生된 것은 紀元前 6世紀의 Miletus學派의 自然哲學者들에 의해서였다. 이들은 宇宙萬物을 唯一한 根源으로부터 說明하려던 一元論者들이었다. 紀元前 5世紀의 後期自然哲學者들은 宇宙의 生成變化의 문제를 다루어 原子論的 世界觀을 樹立했다. 原子(Atom)는 性質上으로는 同一하나 量的으로 差異가 있으며 無數한 原子의 運動으로써 宇宙를 說明한 점에서 近世의 科學的 世界觀의 先驅가 되고 있다. 現代의 自然科學的 世界觀은 그것의 發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古代의 自然科學的 世界觀과 그로부터 約 2,300餘年の 歲月이 흐른 오늘의 自然科學的 世界觀을 比較해 보면 理論과 實驗에 있어 광목할 程度의 差異가 있다. 古代의 宇宙論은 天動說이었고, 分割할 수 없는 Atom은 觀念的인 것이었고, 運動을 Atom의 本質的 屬性이라고 보는 素朴한 自然科學的 世界觀이었다.

現代는 宇宙論에 있어 地動說을 주장하고 있으며, 近世의 力學的 世界像을 擴大시켜 相對

論의 世界像을 토대로 相對論의 世界觀을 樹立했다. Atom의 문제에 있어 量子假說, 쿼크 假說, 波動등을 통하여 古代에는 想像도 할 수 없었던 實驗으로써 素粒子의 世界를 다룰 수 있는 되었다. 즉 數學과 力學의 눈부신 發達로 실로 廣大한 天體와 실로 微小한 素粒子의 運動을 測定할 수 있게 됐다. 物質, 時間, 空間, 運動등의 概念이 感覺論에 의해서 成立되었던 古代人들의 概念에 비해 現代의 이러한 概念들은 知的革命과 技術의 革命으로 인하여 놀랄 程度로 發達됐다. 宇宙는 古代人들이 想像할 수 없을 程度로 넓은 것을 알게 되었다. 自然의 構成要素는 그들이 생각하고 想像하던 Atom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微粒子라는 것이 밝혀졌을뿐 아니라, 또한 物質을 波動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物質像을 가지는데 이르게 됐다. 現代의 時間과 空間概念의 變革과 諸物體運動의 測定の 技術의 發達は 感覺的 自然像을 變革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이러한 自然科學像을 토대로 이루어진 現代의 自然科學의 世界觀은 새로운 눈으로 自然世界를 바라보게 한다. 自然은 自然으로서 獨立된 存在者이며, 神의 攝理를 위해 있는 目的物도 아니며, 自然에서 생겨난 人間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自然은 人間이 있거나 말거나 그대로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태어난 人間은 그 自體가 自然이며, 自然의 一部이다. 우리는 自然의 性質과 運動과 構造를 잘 알아서 우리의 삶에 잘 利用할 수 밖에 自然에 대한 별 다른 道理가 없다.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록 自然의 힘의 무서움만 알고 그 理致를 몰랐으므로 神과 같은 무슨 다른 힘을 통하여 自然에 對抗하고 支配하려 하였다. 그러나 自然科學을 통하여 漸漸 그 性質과 法則을 알아감에 따라 自然에 관한 우리의 態度와 見解는 달라지게 됐다. 自然을 아는 길은 自然을 한 獨立된 存在者로 보고 觀察, 實驗, 測定, 計算등을 통하여 그것의 性質과 힘의 法則을 찾아내는 길이다. 自然에 관한 科學이 發達될 수록 우리는 自然을 잘 알 수 있다고 믿게 됐다.

自然科學의 世界觀은 自然自體를 可能한 限 있는 그대로 研究하여 얻어진 여러가지 自然科學의 世界觀을 統一하여 그것을 토대로 自然世界를 보는 世界觀이다. 이런 立場에서 볼 때에 古代와 中世에 비해서 近世에서 現代에 이르는 自然科學의 世界觀은 自然을 全體的으로 더욱 넓고 깊게 보는 가장 適切한 世界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神과의 관계, 人間과의 관계를 떠나서 自然을 自然 그대로 獨立된 것으로 보고 研究해 나가는데서만 自然의 理解는 더욱 넓고 깊어질 것이다. 自然의 研究의 業績은 크면 클수록 間接的인 方式을 통하여 人間 生活의 向上과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 3. 哲學의 世界觀

哲學의 世界觀은 두 方面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特殊哲學의 世界觀과 一般哲學의 世界觀이 그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自然科學의 世界觀을 論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哲學의 世界觀을 세우면 自然哲學의 世界觀이 된다. 따라서 社會科學을 토대로 한 社會哲學의 世界像위

에 社會科學의 世界觀이 成立되며, 그 위에 社會哲學의 世界觀이 成立되게 된다. 그리고 言語와 歷史를 토대로 한 人文科學의 世界像 위에 人文科學의 世界觀이 成立되며, 그 위에 人文哲學의 世界觀이 成立된다.

이러한 特殊哲學의 世界觀을 統一하는 데서 普遍的인 一般的 哲學의 世界觀이 成立된다. 이러한 哲學의 世界觀은 世界觀의 世界觀 즉 全體的 統一的 體系的인 普遍世界觀이다. 眞正한 意味의 哲學의 世界觀 즉 最高段階의 哲學의 世界觀은 이러한 世界觀을 말하는 것이다.

特殊的 哲學의 世界觀의 一例로 위에서 論한 自然科學의 世界觀과 連結시켜 自然哲學의 世界觀을 살피고 나서 一般哲學의 世界觀을 概括的으로 論해 보려고 한다.

自然科學의 世界觀과 自然哲學의 世界觀의 差異는 科學과 哲學의 差異에서 온다. 科學은 對象을 있는 그대로 分析, 測定, 統計, 綜合, 統一등의 研究過程을 밟아 알리는데 대하여 哲學은 그 成果와 人間과의 關係에서 그 限界, 妥當性, 目的, 價値등을 考察하는 데서 成立된다. 그러므로 哲學은 科學의 立場에 서는 것이 아니라 人間的 批判的 立場에 서게 된다. 哲學은 認識論, 形而上學, 存在論등을 토대로 科學의 根據를 세워주며, 科學의 概念과 原理와 定理를 批判하여 超越하는 超科學的인 高次的 立場에 서게 된다. 哲學은 결코 科學을 度外視하거나 無視하여서는 아니되고, 科學을 토대로 하여 한걸음 올리려는 것이다. 科學은 自體의 概念과 法則이나 限界나 價値를 正當하게 評價하기 힘드나 科學을 對象으로 하는 哲學은 高次的 立場에 서기 때문에 이러한 소임을 능히 할 수 있게 된다.

自然哲學의 世界觀은 自然科學의 世界觀을 對象으로 하여 그것의 範圍, 限界, 妥當性 등을 밝히고 그리고 人間的 生活目的과, 生活理想과 生活價値와의 關係등을 考察하며 批判하는데서 成立된다. 自然科學의 世界觀이 客觀的이라면 自然哲學의 世界觀은 主·客觀的이라고 할 것이다. 自然科學의 世界觀이 自然의 眞相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분다면, 哲學의 世界觀은 그러한 眞相이 우리의 生活에 어떤 影響을 줄 것이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의 立場, 즉 自然과 人間과의 關係의 立場에서 自然科學의 世界觀보다 高次的인 폭 넓고 깊은 世界觀을 세우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人間은 自然속에서 살면서 社會를 이루고 있는 고로 社會를 多角的으로 알아야하는 社會科學이 必要하며, 또한 言語生活을 하며, 傳統을 계승하고 發展시키는 歷史生活을 하므로 이에 관한 研究인 人文科學이 必要하게 된다. 人間의 特性을 잘 나타내는 言語, 藝術, 歷史, 宗教등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는 人文科學은 科學中 上位層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社會科學의 世界觀이 自然科學의 世界觀을 토대로 하면서도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特有的 世界觀을 가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人文科學의 世界觀은 兩者를 摺衷적으로 하면서 그것 特有的 世界觀을 가지게 된다. 自然科學, 社會科學, 人文科學등 이러한 各各의 特殊科學의 世界觀에 立脚한 哲學의 世界觀이 成立되게 된다.

一般的으로 普通 哲學의 世界觀이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諸特殊的 哲學의 世界觀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가려, 보다 高次的 見地에서 이것들을 包攝하여 統一한 世界觀을 가리킨다. 이러한 世界觀이야말로 自然, 社會, 歷史가 結合되고 統一된 歷史的 現實을 넓게 그리고 깊이 볼 수 있는 世界觀이 될 수 있다. 自己를 또는 우리를 둘러싼 宇宙와 社會와 그 속에서 主動이 되는 人間主體를 바로 알아 自覺하는데서 이루어지는 哲學的 世界觀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指針이 될 수 있다.

## 結 論

哲學的 世界觀과 科學的 世界觀 常識的 世界觀과 科學的 世界觀과 哲學的 世界觀을 區別하면서 그 관계를 論했는데 이 區別은 거기에서 使用되는 言語와 論理로써도 가릴 수 있다. 常識的 世界觀의 記述과 說明에는 日常言語와 初級論理가 使用되고 있으며, 科學的 世界觀의 記述과 說明에는 科學的 言語인 記號와 記號論理가 使用되고 있다. 哲學的 世界觀의 記述로 說明에는 日常言語나 科學的 言語가 아닌 그것들에 관한 메타 言語인 哲學的 言語와 哲學的 論理를 使用하게 된다. 言語에 있어 根本的으로 差異는 없으나 常識에서 使用되는 日常言語가 感覺的인데 比하여 精確性과 客觀性을 目標로 하는 科學에서 使用되는 科學言語는 私的인 記號로 되어 있는 點에 差異가 있다. 哲學的 世界觀에서 使用되는 哲學的 言語는 兩者를 包括하는 보다 全體的인 高次的인 言語이다. 論理에 있어서도 이러한 次元的 區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世界觀은 世界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世界를 어떻게 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設計圖이며 指針書이며 理想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差異를 비유로 例를 든다면 世界를 한 집이라고 생각할 때에 常識的 世界觀은 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관한 統一的인 論이요, 科學的 世界觀은 그 집을 지었던 혹은 짓는 建築圖를 찾거나 만드는 것에 해당되며 哲學的 世界觀은 좋은 建築圖를 골라 집을 지어 그 속에서 사는 것에 해당될 것이다. 집은 잘 짓는 것이 좋으나 만일 그 속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집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哲學的 世界觀은 常識的 世界觀과 科學的 世界觀을 싸면서 넘어서는 가장 包括的인 論이요, 또 한 가장 깊은 世界觀이다. 哲學的 使命이 當代的 世界觀을 樹立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올바른 世界觀을 세우는 것은 哲學的 하나의 任務인 것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科學的 世界觀이 科學의 性格을 띄어 客觀的이며, 合理的이며, 普遍的인 것인데 比해 哲學的 世界觀은 哲學者의 立場, 態度, 體驗 등의 差異로 主·客體이며, 合理·非合理的이며, 普遍·特殊的인 多樣的인 모습을 띄게 된다. 哲學은 哲學者와 그 學派의 色彩 또는 歷史的 現實의 差異에서 오는 文化的 多樣性의 影響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多樣的 哲學

的 世界觀의 發生은 避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몇 가지의 類型으로 區別하여 그것에서 어떠한 類型의 世界觀을 取하여 사는 것이 좋을가를 決定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의 當爲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미 있던 낡은 世界觀중에서 어느 것을 取하는 것보다는 歷史的 現實에 立脚하여 거기에 맞는 世界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重要的 일이라고 생각한다. 歷史적으로 도리켜 볼 때에 어느 時代나 社會나 그 나름대로의 世界觀을 가지고 살았다. 現代는 現代에 맞는 그리고 눈을 좁혀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哲學的 世界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어떤 民族의 世界觀이 다른 民族의 世界觀보다 낫다고 斷定하기는 困難하다. 風土와 社會와 文化가 各各 다르기 때문에 普遍的인 世界觀 밑에 特殊的인 面이 加味되어야 하는 보다 具體的인 世界觀의 樹立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常識的 世界觀조차 없이 살고 있지만, 世界觀을 가지는 것은 個人的으로 社會的으로 삶을 充實하고 價値있게 해나가는 길이며, 常識的 世界觀을 가지는 데 머무는 것 보다는 科學的 世界觀을 그 위에 가지는 것이 나으며, 科學的 世界觀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서 그 위에 哲學的 世界觀을 세워 사는 것은 個人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人類的으로나 誠實하고 幸福하고 繁榮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停年退任紀念講演：1978. 6. 23>